

[TV]

TV 3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able with 3 column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Lists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파격변신 만족... 신나게 연기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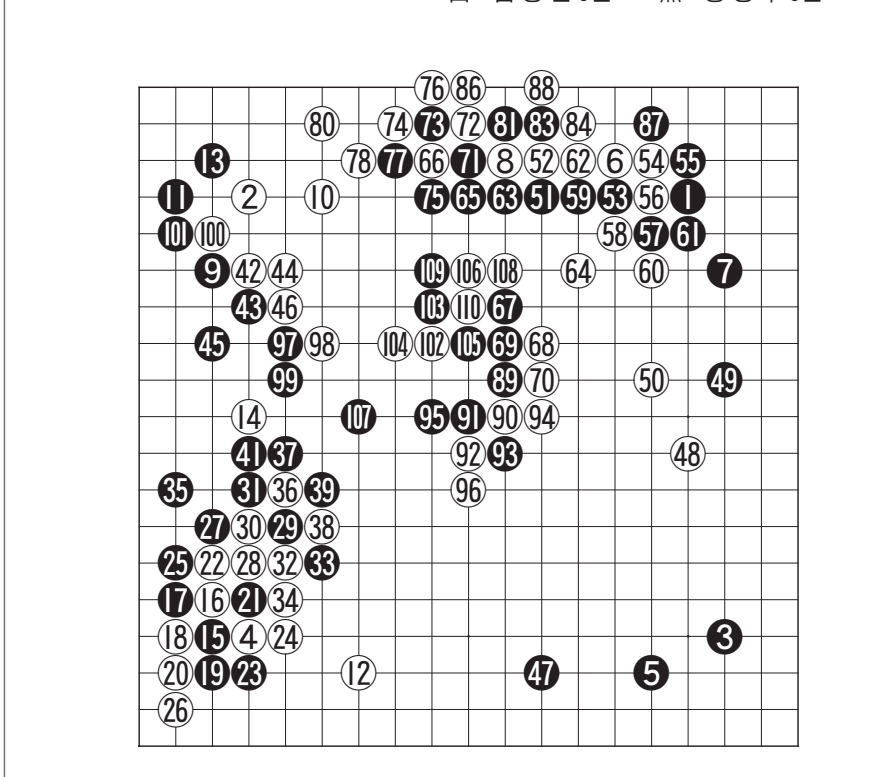
KBS 2TV '미워도 다시 한 번' 은혜정역의 전인화

단아한 이미지의 배우 전인화가 “오랜만에 신나게 연기한다”며 파격적인 변신에 만족감을 표했다. KBS 2TV 수목드라마 ‘미워도 다시 한번’(극본 조희, 연출 김종창)에 출연 중인 전인화는 2일 KBS수원센터에서 “중년층이 중심이 되는 드라마가 오랜 만이라서 그런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고 일단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다”며 “매일 밤을 새워도 단합이 잘 되고 호흡이 잘 맞으니까 좋다”고 말했다. 중년의 로맨스를 전면에 내세운 이 드라마는 전인화, 박상원, 최명길의 열연으로 MBC ‘풀어낸 일지매’와 SBS ‘카인과 아벨’을 누르고 수목드라마 경쟁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극 중 전인화는 첫사랑 이정훈(박상원)의 내연녀로 그를 사이에 두고 그의 아내인 재벌 회장 한명인과 대립하는 인기 영화배우 은혜정 역으로 출연 중이다. 배우로서 극 중 배우 역할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그는 “배우로 살아가는 동안 느꼈던 감정보다 막상 극 중에서 표현하니 ‘이런 애로점이 있었구나’라고 새삼스럽게 느낀다”고 공감을 표했다. 극 중 떠나간 이정훈의 아이까지 기르며 사는 그는 여전히 정훈을 자신의 남자라고 생각하며 가슴앓이를 한다. 실제로는 남편인 배우 유동근과 20대 초반에 만나 20년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전인화는 “첫사랑인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혜정의 사랑에 대한 공감대가 없어 상상력을 동원한다”고 말했다.

최근 주로 사극에 출연하며 온화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보여온 전인화에겐 이번 역할은 파격적인 변신이다. 처음 출연 제의를 받고 고민에 빠졌던 그는 이제 은혜정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굉장히 편안해요. 직업도 저와 똑같은 여배우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주름이 잡혀가는 것을 슬프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나이대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은혜정 역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남의 가정의 위협하는 악녀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연기하는 전인화에게는 이제 악역이 아닌 한 인간일 뿐이다. /연합뉴스



제5회 서구청장배 바둑대회



토너먼트 기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바로 4강전인 준결승전이다. 준결승전에서 이기면 대망의 결승전에 진출하는 영예를 차지하게 되나 지는 날이면 길이 빠지는 3, 4위전을 치러야 하니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준결승전인 셈이다. 정병우 6단은 이토록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이없는 대착각으로 인해 거의 손아귀에 들어왔던 결승판 티켓을 임상빈 6단에게 헌납하고 말았다. 초반전은 좌하귀에서 백 18로 끊는 강수를 성공시킨 임상빈 6단의 우세로 흘러갔는데 흑 39로 단수쳤을 때 고지식하게 40에 있는 바람에 하변을 흑 47로 벌리게 되어서는 오히려 흑이 앞서나 가게 된다. 우상귀의 접전에서 백 56으로 나가 끊은 장면부터가 이 바둑의 승부처였는데 백 70으로 상변에 한칸 댄 수가 결정적인 실착이었다. 이 실수를 포착해 정병우 6단이 흑 71 이하 교묘한 수순으로 백집을 깨뜨리고 흑 87까지 선수를 얻어내서는 흑 승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들여다 본 백 106에 그만 손을 빼는 바람에 대역전을 당한 것이다. 허망한 결말이다. 백 110 수 끝, 백 불계승. <규정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3일(음 2월 7일 丁未)
36년생 수하인과 금전거래는 불량이 될 수 있다. 48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마음은 편안하라. 60년생 상황이 변하니 주의 깊게 살펴보고, 72년생 버려진 일이 꼭 이루어진다. 84년생 멀리서 친구가 오니 즐겨주라. 행운의 숫자: 11, 41
37년생 뜻밖의 재난이 올 수 있다. 49년생 피로 주고 말로 받으니 활동을 많이 하라. 61년생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성의껏 협조하라. 73년생 도움을 주면 답은 그 이상이다. 85년생 나이는 숫자일 뿐 즐겁게 인생하라. 행운의 숫자: 12, 30
38년생 근처에서는 괴로움이 먼 곳에서는 좋은 소식이 온다. 50년생 결정을 신중하게. 62년생 희망은 꼭 이루어진다고 믿는에게 온다. 74년생 흐린 날을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18, 35
39년생 할 일은 분명하게 처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라. 51년생 편안한 하루가 된다. 63년생 전리 깊도 한결을부터 차근차근 전진하라. 75년생 직장과 자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20, 38
40년생 좋은 사람과 하투가 되리라. 52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주변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64년생 자녀는 자신의 미래이니 자기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76년생 오전은 흥하니 오후는 길하다. 행운의 숫자: 21, 32
41년생 옛 일이 괴로움으로 나타난다. 53년생 양보 반기 보다는 먼저 양보하면 좋은 날이 된다. 65년생 아내가 힘이 드니 아내를 살펴보고, 77년생 숨이 가쁜 하루다. 행운의 숫자: 22, 34
42년생 속전속결로 추진하면 대세가 생긴다. 54년생 속 타는 일이 생기면 걱정할 일은 아니다. 66년생 생각지도 않은 잔치 집에 갈수도 있다. 기본은 미미하다. 78년생 상대가 원하면 무엇이든 다주어라. 행운의 숫자: 01, 43
43년생 사소한 말이 시비가 될 수도 있다. 55년생 불의의 어려움이 오지만 심성의 안정을 지키면 대고는 없다. 67년생 부부간에 다정다정 시간을 마련하라. 79년생 몸은 고달프나 마음의 안정은 있다. 행운의 숫자: 02, 31
44년생 남과 말다툼은 사비로 비화되니 절대로 피해야 한다. 56년생 실물수가 있으니 문단속을 잘하라. 68년생 친척의 보증을 서지 마라 흥한일이 생기리라. 80년생 출구가 노를 하나 늘리면 된다. 행운의 숫자: 14, 28
45년생 추진하는 일을 꼼꼼히 점검하라. 57년생 중심을 잡으면 자신이 편안하라. 69년생 주변의 이웃과 친척을 찾아보고 안부를 확인 해보라. 81년생 저녁 늦게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17, 16
46년생 자녀의 고민을 먼저 생각해봐라. 58년생 자기의 지위는 자신이 지키도록 노력하라. 70년생 외려내려 내적한 것에 마음을 쓰라. 82년생 오후에는 화재주의를 경계하라. 행운의 숫자: 23, 42
47년생 오늘은 문단속을 잘해야 하리라. 59년생 오늘은 교통사고를 주의하고 음주운전은 아예 생각을 마라. 71년생 사비는 화해로 처리해야 뒤말이 없다. 83년생 순리대로 처리하면 문제는 없다. 행운의 숫자: 24, 44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1. What about a MP3 player for her car? (English to Korean), 2. 予約番号とお名前を教えてください (Korean to Japanese), 3. 打卡 출근카드를 찍다 (Chinese to Korean), 4. 泰山壓卵(태산압란) 클 태, 뒀 산, 누를 압, 알 란 (Chinese to Korean). Each column includes a question, a sample conversation, and key vocabulary.